



미 증시, 중국 경기 부진, 사우디 감산 연장 등에 약세

미국 증시 리뷰

5일(화) 미국 증시는 중국 서비스업 PMI 부진,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기간 연장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및 시장금리 재상승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약세 마감 (다우 -0.56%, S&P500 -0.42%, 나스닥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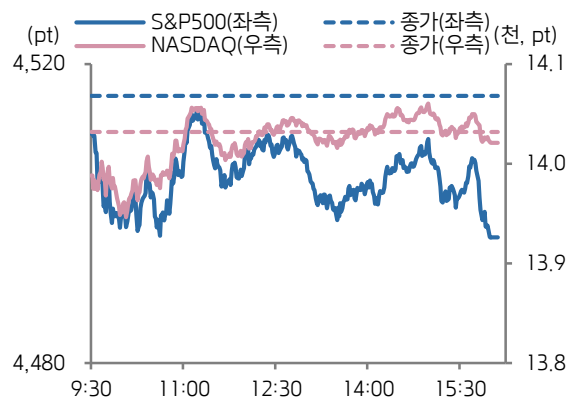
월러 연준이사는 금리인상을 빠르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추가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데이터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지난 지표에 대해 "연속해서 두 번 좋은 보고서를 봤다"면서도 "우리가 금리인상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한번 더 인상하는 것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

사우디는 올해 연말까지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인 감산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 일각에서는 감산이 연장될 경우 10~12월까지도 사우디의 일일 원유 생산량이 약 900만 배럴에 그치게 되며, 하반기 중국 수요 증가 전망과 맞물려 공급 부족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러시아 역시 8월 50만 배럴 감산에 이어 이달에도 하루 30만 배럴씩 석유 공급량을 줄이겠다고 발표.

미국 7월 제조업수주는 MOM -2.1%(예상 -2.5%, 전월 2.3%), 운송을 제외한 제조업 수주는 0.8%(예상 0.1%, 전월 0.3%) 기록. 유로존 8월 서비스업 PMI는 47.9(예상 48.3, 전월 48.3) 기록하며 부진.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7.6%(예상 -7.6%, 전월 -3.4%) 기록하며 낙폭 확대.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1.8(예상 53.8, 전월 54.1)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고 5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연중최저치 기록. 집계측은 해외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중국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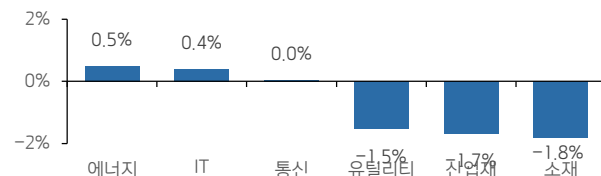
EU는 올 11월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을 앞두고 '게이트키퍼' 플랫폼 명단을 지정하면서 애플의 '아이메시지'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엔진 '빙'의 채택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 원) 이상, 월간활성이용자수(MAU) 4500만 명 이상인 기업 서비스를 게이트키퍼 요건. DMA상 게이트키퍼는 핵심 플랫폼사업자로서 이용자에게 경쟁사 서비스도 상호 호환되도록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글로벌 매출의 10% 벌금 부과. 현재 구글 검색엔진,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바이트댄스의 틱톡 등은 이미 규제대상으로 확정.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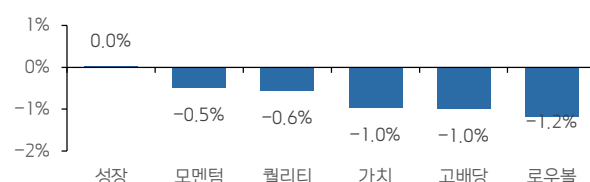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82.18	-0.09%	USD/KRW	1,330.77	+0.87%
코스피 200	340.29	-0.21%	달러 지수	104.78	+0.52%
코스닥	921.48	+0.25%	EUR/USD	1.07	+0.01%
코스닥 150	1,440.69	-0.6%	USD/CNH	7.30	-0.04%
S&P500	4,496.83	-0.42%	USD/JPY	147.69	-0.02%
NASDAQ	14,020.95	-0.08%	채권시장		
다우	34,641.97	-0.56%	국고채 3년	3.765	+3.3bp
VIX	14.01	+1.37%	국고채 10년	3.887	+3.2bp
러셀 2000	1,880.45	-2.1%	미국 국채 2년	4.960	+8.1bp
필라. 반도체	3,683.79	+0.03%	미국 국채 10년	4.260	+8.1bp
다우 운송	15,488.72	-2.19%	미국 국채 30년	4.370	+7.7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69.16	-0.25%	WTI	86.69	+1.33%
MSCI 전세계 지수	683.97	-0.6%	브렌트유	90.05	+1.18%
MSCI DM 지수	2,973.45	-0.56%	금	1952.6	-0.74%
MSCI EM 지수	985.84	-0.97%	은	23.56	-2.78%
MSCI 한국 ETF	62.76	-0.71%	구리	381.1	-0.0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1%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8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29.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국제 유가 강세, 금리 상승 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테슬라의 주가 급등이 국내 관련주 투자심리 개선시킬 지 여부 3. 장중 10 년물 금리 및 국제 유가 흐름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미국 채권시장의 변동성 측정하는 지표인 MOVE 지수는 전일 대비 6% 급등한 109pt 를 기록하긴 했으나, 이전에 비해 일정부분 레벨 다운된 상태(연중 최저는 2 월 2 일 97pt, 연중 최고는 3 월 15 일 198pt). 하지만 10 년물 국채 금리가 8 월 후반에 심리적인 1 차 저항선인 4.3%대를 상회한 이후 좀처럼 4.2%(6 일 현재 4.26%)대 이하로 내려가지 못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고금리 부담이 점차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

최소 9 월 FOMC 까지는 금리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미 10 년물 금리의 전고점(8 월 21 일 3.34%)이 어디까지 도달할 것인지를 둘러싼 불안과 마주하고 있는 실정.

이전 고점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인데다 추후 금리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황 상 10 년물 금리 4.5%까지는 주식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레벨인 것으로 보임.

이는 9 월 4 일 블룸버그에서 약 330 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증시 서베이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서베이에서는 하나의 가정으로 10 년물 금리가 4.5%에 도달했을 때 응답자들의 약 20%는 “10% 이상의 폭락(S&P500 지수 기준)”을 겪을 것이라고 답변한 반면, 응답자들의 약 56%는 “10% 미만의 조정”, 약 24%는 “현재의 상승세 지속”이라고 답변.

향후 주식시장이 8 월 CPI 혹은 9 월 FOMC 를 겪으면서 조정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10 년물 금리가 4.5% 이상으로 치솟지 않는 이상 그 충격은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 또 연말까지 감산연장을 결정한 사우디의 발표로 WTI 유가가 86 달러를 상회하면서 공급 측면의 에너지발 인플레이 압력을 가하고 있기는 함. 그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은 소비 및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 하락 압력도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유가 7 월말 80 달러 -> 9 월 현재 86 달러 vs 10 년 기대인플레이션 7 월말 2.39% -> 9 월 현재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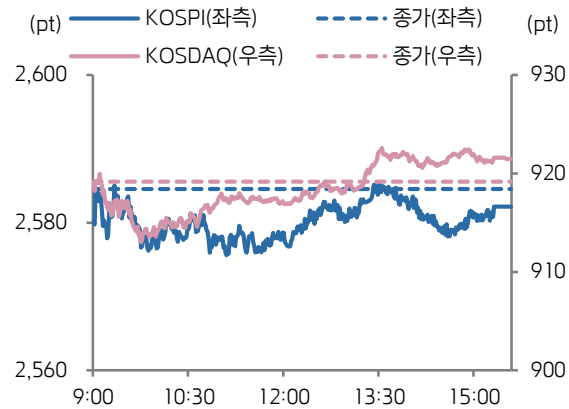
결국 금리와 유가의 변동성이 증시에 제약적인 환경을 조성시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수 하방 베팅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 다만, 상기 서베이에서 금리 4.5%대 진입했을 경우 미국 증시 내 수혜 업종으로 은행(57%), 에너지 및 소재(23%)를 지목했다는 점을 감안 시, 국내 증시에서도 금리 불확실성에 대비한 위험관리 차원에서 9 월 중 관련 업종들을 포트의 일부로 편입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판단.

전일 국내증시는 장중 10 원 급등한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외국인의 1,000 억원대 순매수가 이어진 가운데, 반도체 및 2 차전지 부진 속 AI, 로봇, 중국 경기 부양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혼조세 마감(코스피 -0.1%, 코스닥 +0.3%).

금일에는 산유국 감산 연장에 따른 유가 강세, 연준 긴축 경계 지속에 따른 금리 상승 등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0.03%), 나스닥(-0.08%) 등 양호하게 마감한 미 증시를 반영하면서 약보합 출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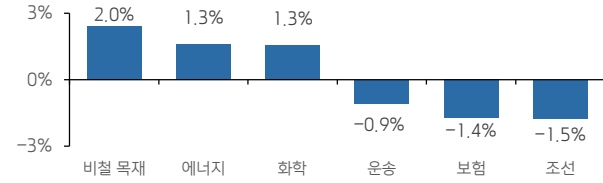
금일에도 지수 상단이 제한되는 만큼 업종이나 테마 내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 이런 관점에서 미국 테슬라(+4.8%)이 최근 가격인하에 따른 수익성 우려에도 중국 내 8 월 인도량 증가 소식(MoM +31%, YoY +9%)으로 급등했다는 점은 국내 이차전지,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투자심리를 호전시켜 줄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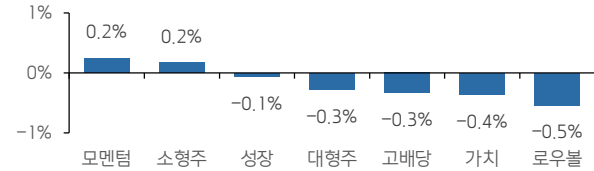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